

# 목록규칙에 있어서의 표목부의 변천에 대한 연구

- 한국목록규칙과 영미계목록규칙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rocess of Changes of Headings in the Cataloging Rules

정 옥 경 (Ok-Kyung Chung)\*

### 목 차

- |               |                  |
|---------------|------------------|
| 1. 서 론        | 4. 영미계목록규칙       |
| 2. 표목의 의미     | 4.1 AACR이전의 목록규칙 |
| 3. 한국목록규칙     | 4.2 AACR이후의 목록규칙 |
| 3.1 KCR과 KCR2 | 4.3 AACR의 미래     |
| 3.2 KCR3      | 5. 온라인환경하에서의 접근점 |
| 3.3 KORMARC   | 6. 목록규칙의 미래      |
| 3.4 KCR의 미래   | 7. 결 론           |

### 초 록

본 논문은 목록규칙에 있어서의 목록의 접근점인 표목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한국목록규칙과 영미계목록규칙에 나타난 표목부의 변천, 온라인 환경에서의 접근점과 미래 목록규칙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본표목의 개념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온라인 환경에서 기본표목의 개념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 한국목록규칙, 영미목록규칙 제21장, MARC포맷 그리고 KORMARC포맷의 표목부가 목록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록규칙의 개정은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미디어에 근거한 지속적인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고 미래 목록규칙에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

\* 시립인천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접수일자 : 96. 9. 16

## ABSTRACT

This paper studied the process of changes of the heading which is access point of the catalog in the cataloging Rules. The first described change of the concept of heading, and described change of headings in the Korean Cataloging Rules and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And then described headings in the online environment and future of cataloging rules.

The concept of the main entry has lost any meaningful purpose in today's online catalog environment, despite a multiplicity of definition. To bring cataloging rules up-to-date, Headings of KCR, AACR2 Chapter 21, the MARC format and KORMARC format need to be revised.

The revision of this cataloging rules should be based on Hypertext and Hypermedia. A Continued empirical research would be most welcome, and should be incorporated into future cataloging rules.

## 1. 서 론

목록의 작성을 효과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편목규칙이 필요하게 된다. 편목규칙이 편목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목록의 표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편목규칙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각국의 서지정보가 국제적으로 유통되게 됨에 따른 목록의 국제적인 표준화의 요청에 부응하여, 1961년에는 소위 파리원칙의 채택으로 검색과 배열의 기준이 되는 표목과 저록요소가 표준화되었다. 파리원칙이 각국의 목록규칙의 표목부의 개정에 반영되었다.

목록은 정보자료의 검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도구이므로, 우선 정보를 찾고자 하는 이용자가 최초로 접근하게 될 검색항목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용자들의 검색을 위한 접근점이 될 수 있는 항목이 반드시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명이나 편자명 또는 서명이나 주제명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그 가운데 어느 것을 검색항목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또한 만약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을 검색항목으로 결정했을 경우, 이용자들은 기타의 항목에 의해서는 검색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도서관에서는 저자명, 편자명, 역자명, 서명, 총서명, 주제명 등 이들 가운데 무엇이 의해서든 동일한 정보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표출항목의 어순에 따라서 각각 배열하도록 고안한 것이다. 여

기에서 검색의 접근점이 되는 이 표출항목을 표목(Heading)이라고 한다. 표목은 “목록에 있어서의 접근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목록기록의 첫머리에 놓인 인명이나 낱말이나 혹은 어구”(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7, p. 345)를 말하며, 특정한 서지적 실체에 대한 목록에 있어서의 기본저록(Main Entry)으로서의 기능을 말한다.

1970년대 정보의 전산화가 추진되면서 국제적으로 서지정리방법의 표준화와 서지정보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ISBD에서 채택된 기술독립방식은 기술부에 완전한 서지정보가 기입되므로 표목없이도 완전저록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다. MARC의 등장과 더불어 ISBD와 ISO2709, UNIMARC 등의 국제적 표준이 잇따라 지정되고 이러한 규칙들이 각국의 목록규칙에 적극적으로 수용되면서 기계독서지데이터의 국제적 상호교환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라인목록시대에 도래하고 있는 오늘날 목록규칙상에서 표목의 변천과정과 온라인 환경하에서 표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미래에 어떠한 변화가 예견되는지를 고찰하고 연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고에서는 정보를 찾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접근점이 되는 표목이 목록규칙에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한국목록규칙과 영미계 목록규칙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특히 온라인 환경하에서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표목의 의미

표목은 최초의 목록에서 부터, 목록과 더불어 실존하여,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표현형식 및 선정방법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변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목의 개념과 정의는 Cutter의 규칙에서부터 비롯된다. Cutter(1904, p.20) 규칙에 의하면 “표목이란 목록에 있어서 저록의 알파벳순 위치가 결정되는 낱말로써, 보통 저자명, 주제명, 문학형식이나 실제형식의 명칭 또는 서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는 표목의 기능을 배열의 기준과 표목의 선정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AACode(Catalog Rules, 1908)에서는 목록에 있어서 저록의 알파벳순 위치가 결정되는 낱말로써, 일반적으로 저자명, 주제명, 관사가 아닌 서명의 최초의 낱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Cutter규칙의 정의와 비교해 보면 거의 개념이 유사하다. 다만 문학형식과 실제형식의 명칭이란 말이 없고, 관사가 아닌 이라는 말이 대치되었을 뿐이다.

1949년판인 ALA목록규칙(ALA, 1949, p.232)에서는 표목에 대해서 “저록의 머리에 기재된 이름, 낱말, 또는 어구로서 도서의 어떤 특수한 측면(저자, 주제, 총서, 서명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것에 의하여 조합하고 동류로 된 자료를 목록에서 함께 모이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ALA목록규칙에서의 표목의 개념은 상기의 두 개념에 비하면 ‘알파벳순’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름’ ‘낱말’ ‘어구’로 표현했을 뿐이며, 그 의미는 역시 상

기의 두 정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목록의 기능으로서의 ‘동류의 자료를 함께 모이게 하는 것’을 추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상기의 세 정의는 표목이 될 수 있는 구비조건을 설정하고, 배열의 기준과 표목의 위치 등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 이를 이용에서의 검색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전혀 논급이 없다.

영미목록규칙 초판(AACR1)에서는 표목을 “첫째, 이름, 낱말 또는 어구로서 목록의 접근점을 제공해 주기 위한 목록기록의 맨 앞에 위치한 것. 표목은 특정한 서지적 실체에 대한 목록작성에 있어서의 저록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둘째, 때로는 목록기술에 있어서 표목중에 인명과 단체명 그리고 서명을 나타내는 통일된 형식에 관한 양상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ALA, 1967, p.345)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규명은 이전의 목록규칙에서의 정의보다 표목의 개념을 명백하게 해주고 있다. 또한 기존의 목록규칙에서는 논급이 없었던 ‘검색’의 기능을 정의에 포함시키므로써 더욱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

목록규칙상 표목의 정의를 최종적으로 내린 영미목록규칙2판(AACR2)에서는 “목록에 있어서의 한 검색점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목록기술의 맨 앞에 위치한 한 이름, 낱말, 또는 어구”라고 했다. 이는 AACR1의 첫째 항목에 해당되는 정의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써 표목의 주된 기능인 검색의 기능과 위치를 설정하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Cutter의 목록규칙이래 AACR1에 이르기까지 표목의 적용범위를 인명, 서명, 주제명 등에 국한시켜 온데 비하여 AACR2에서는 표목의 적용범위에 대

한 언급이 없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저록이라는 개념 자체가 쇠퇴된데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ACR2이전의 목록규칙에서는 기본저록은 통상 저자가 된다는 서양의 전통적인 관례에 사로잡힌 개념으로 생각된다.

Gorman에 의하면 “기본저록은 기계화 이전의 기술에 근거한 기술상의 한계에서 생긴 것이며, 현대의 기술에 의한다면 동등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접근점을 다수 설치할 수 있다”(Gorman, 1978, p.218). 이 주장의 결론은 저록선택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접근점형성을 위한 규칙을 하나로 하는 것이다. 발달된 기계시스템에서는 현재와 같은 기본저록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은 의심이 없다. 사실상 AACR1 개정과정 초기에 일어난 중요한 문제는 기본저록개념에 대한 유효성에 관한 것이었다. 기본저록은 AACR2의 근본원리로서 존속되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본저록의 전통적 목록이론에서 중심부분을 차지하는 중요성, 도서관 목록에서 차지하고 있는 확고한 지위, 책자목록, 서가목록, 단일저록제(Single-entry listing)의 목록에 있어서의 실용성을 지적한 반면에, AACR2에서 기본저록을 폐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발달된 기계시스템’ 하에서는 존속의 가치가 없다는 이론과 논란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AACR2는 기본저록의 개념을 보완한채 발간되었으나 그 개념은 강화되었다.

사실상 AACR2의 제2부인 접근점은 기본저록을 중심으로 한 AACR1의 주요 부분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AACR2의 제2부 접근점이 존재하는 한 이제까지의 기본저록의 개념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영미목

록규칙 합동개정위원회(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 = JSCAACR)에서 “기본저록에 대한 의견조정을 거쳐서 개념은 보유되었다”(Gorman, 1978, p.218)고 서술하고 있는 면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상에서 규명한 바처럼 본고에서는 표목은 ‘목록에 있어서의 접근점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한 저록의 첫머리에 위치한 이름이나, 낱말, 혹은 어구’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표목은 한 저록의 첫머리에 위치한 필수적인 부분이며, 한 저록은 목록을 형성하는 기본단위라고 말할 수 있다.

### 3. 한국목록규칙

본 절에서는 한국목록규칙상에 나타난 표목부 또는 접근점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 3.1 KCR과 KCR2

1961년 10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목록원칙국제회의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의 편목원칙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채택된 ‘제원칙에 관한 성명(Statement of Principles)’ 가운데는 ‘저자명기본저록원칙’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에 있어서 유일한 편목원칙은 박봉석 편 ‘동서편목규칙’이었던 바, 이 규칙은 ‘서명기본저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국제적인 원칙에 준하는 새로운 편목원칙을 시급히 편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으로 생각된다(정필모, 1993, p.55). 그리하여 한국도서관협회는 1962년에 목록규칙을 제정할 것을 결정하고, 목록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업을 위촉했던 것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1964년 1월에 'KCR' 초판이 발행되었는데 그 규칙은 표목의 선정, 표목의 형식 및 기술목록규칙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저자기본기입원칙을 채택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1964. p. 114). 이는 ISBD(M)이 1974년에 발행된 것과 관련하여 "서명기입이 목록발달상 저자선기입보다 한 걸음 더 발달된 형태이며, 목록이론상 저작의 직접접근책이란 점에서 저자명을 한단계 거쳐서 간접적으로 저작에 접근하는 서양의 저자선기입보다 우위에 서는 것"(리재철, 현규섭. p.5)이라고 한바처럼 KCR초판의 개정은 개악의 경우이지 개선의 경우는 아닌 것이다. 특히 우리의 전통적인 서명선기입론을 폐기해 버린 것은 목록법이론상 되돌리 수 없었던 큰 과오중의 하나가 된다.

KCR초판을 출간한지 2년후 1966년에 수정판을 발행하였는데, 초판과 마찬가지로 저자명기입원칙을 원칙을 채택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개정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1966, p. iii-iv).

- 1) 본 목록규칙의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처음 목록규칙을 제정할 때 결의한 사항들은 그대로 준수한다.
- 2) 규칙 조문의 중복을 될 수 있는 대로 회피하고 단일화 한다.
- 3) 조문 번호를 일련화함으로써 활용하기에 편하도록 한다.

4)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예를 삽입함으로써 조문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5) 목록의 번잡한 감을 덜기 위하여 저자표시에서는 저자명과 저, 또는 편, 역자의 콤마를 생략한다.

6) 부록으로서 표기법과 약어표를 그리고 카아드목록의 실예를 수록하여 이용에 편하도록 한다.

KCR2의 개정위원이 KCR1과 동일하므로 목록규칙의 기본원칙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었다.

특히 KCR2에서 기본기입의 선정과 표목형식에 대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고 초판과 동일하게 발행되어 저자선기입론의 국제적관례에 충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3.2 KCR3

제2판이 나온지 이미 17년이나 경과했고, 그동안 편목규칙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이 간행되어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목록기술법이 표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도 이 국제적 표준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2판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정필모 1993. p.56). 그래서 KCR3는 1983년에 발행되었는데, 7년후인 1990년에 3.1판이라는 판표시하에 개정 발행되었다. 그러나 3.1판은 3판과 비교해 볼 때 주로 오자와 탈자 등을 교정하고 수정한데 불과하며, 또한 2.3, 2.4 및 2.5조에 나오는 목록예시중에서 표목올림지시의 번호매김을 경우에 따라 번호 '2' 부터 매긴점이 차이가 날 뿐이

다(한국도서관협회 편, 1990, 머리말).

KCR3와 KCR3.1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서지기술에 있어서 달라진 점은 구두점이 ISBD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 2) 서지적 기술사항에 있어서 종래에는 단일 저자의 저작의 경우 서명 다음에 저자명표시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단일저자의 저작이라도 반드시 저자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따라서 종래에는 기본저록의 표목과 서지적기술사항이 분리될 수 없었으나 이제는 표목과 서지적 기술사항이 서로 독립성을 갖게 된 것이다.

1966년에 발행된 한국목록규칙 수정판까지는 기본표목의 선정과 표목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KCR3에서는 단행본에 대한 기술부만을 수록하고 말미에 짤막한 표목올림지시편만 있고, 표목의 선정과 그 형식에 관한 규정이 없이 절반만의 완성편으로 발행되었다. 이에 대한 변은 KCR3(1983, p.7)의 서문에 “우선 급한대로 완성된 기술편과 표목올림지시편을 첫권으로 펴내고, 나머지 편들은 그의 완성을 기다려 나중에 권을 달리해서 펴낼 작정이다”고 했다. 그러나 그 후 1990년에 이른바 3.1판을 다시 발행하면서도 표목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미해결 부분으로 남긴채로 판을 다시 내게 되었다. 그리고 판 표시도 3.1판이라는 어색하기 이를데 없는 명칭을 붙여 발행되었다. 이는 아마도 3판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정.오에 대한 바로잡음의 결과에서 온 표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KCR서문(1983, p.7)에 보면 “표목에

대한 규정은 가급적 ISBD와 AACR에 준거하느라 애썼다”고 하고, “표목올림지시에 쓰이는 문자와 형식은 표목편에서 규정한 표목의 그것과 똑같이 취한다”(한국목록규칙, 1983, p.90)고 했기 때문에 KCR3에 표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처럼 혼동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후에 조만간에 판을 보완하여 발행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오늘날까지 이에 대한 개정 및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표목올림지시편에 보면 “먼저 서명표목과 저자표목을 표목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요소가 기술부(주기사항 포함)에 적힌 순서대로 기재하고, 그 뒤에 주제표목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볼 때 KCR3는 결과적으로 모든 저록을 서명기본표목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자동화목록형식(KORMARC Format)에서는 100, 110, 111, 130의 기본표목이라는 항에서 각각 “이 필드는 개인명이 기본표목으로 채택될 경우에 사용한다”(국립중앙도서관, 1993, p.63-66)고 하였을 뿐 기본표목의 선정이나 그 기입형식은 어떻게 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없다. 또한 한국정보관리학회의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에 관한 연구-단행본용 포맷에서는 “기본표목은 목록규칙에 의해 부여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목록규칙인지를 밝히지 못한 것은 KCR3에 표목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혼란은 KCR3판이 제2부 표목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절반의 완성으로 된 규칙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 목록작성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완전

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목록규칙이 되도록 하루 빨리 KCR3의 표목부의 규정이 완성되어 완전한 목록규칙으로 발행되어야 할 것이다.

### 3.3 KORMARC

세계서지통정과 자동화편목법을 목적으로 1971년 발행된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자극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ISBD의 적용을 검토하게 되었다. 1978년에는 정부의 행정전산화계획이 수립되어 당관 업무의 자동화방안이 채택되자 그 계획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실행계획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국립중앙도서관, 1980, ii).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80, 1981년에 KORMARC 포맷을 개발하면서 바로 이 포맷에 적용할 새로운 기술규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각적인 토의 결과 1981년 1월을 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동화준비실에서 입력되는 모든 서지데이터는 ISBD에 준하여 입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ISBD에서 사용되는 표시기호(tags) 245부터 500까지 ISBD에 준하는 것이었다. 이는 ISBD의 기본방향인 '내부에 대한 세부규칙을 정하지 않고 테두리(뼈대)만을 제시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출판되는 문헌을 기술함에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한국적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세부적인 처리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ISBD세부규정안을 한국의 문헌적 특성에 입각하여 성안된 것이 이른바 1982년에 발행된

'국제표준서지기술법에 의한 한국문헌기술세부규칙, 제 1집'이었다. 이어서 1982년에 제2, 3집을 발행하였으며, 1983년에 제1.2.3집의 내용을 보완하여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단행본용)예비노트판'을 발행하였다. 이어서 1985년에 그동안 '예비노트판'에 의하여 실제 서지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단행본용)-예비노트 보완판'을 발행하였다.

1991년 12월에는 '예비노트 보완판'의 '0.11(용어해설)' 및 '1.1라1(관칭과 관제)'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 - 단행본용 기술규칙, 단행본용 포맷, 비도서자료용 포맷'을 각각 동시에 발행되었다. 이들 중에서 단행본용 포맷은 1993년에 KS C5867로 지정되었고, 연속간행물용 포맷은 1995년에 KS C5795로 지정되어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이라는 서명하에 각각 부서명만 달리하여 발행하였고, 연속간행물용 기술규칙도 발행되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KORMARC는 20여년에 걸쳐 계속 연구되고 개선되어 왔으나 그 포맷은 단행본용과 연속간행물용만 각각 별도로 KS로 지정되고 비도서자료와 고서에 대한 포맷은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는 한편 단행본용과 연속간행물용 포맷이외의 모든 기술규칙에 대해서는 아직 KS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단행본용, 연속간행물용, 비도서자료용, 고서용 등 모든 포맷과 이들에 대한 기술규칙이 완성되는 동시에 그것이 모두 통합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미완성단계에 있는 것이다.



MARC는 단순히 목록을 자동화한다는 의미보다도 목록의 서지기술방식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서 국가서지기관(국립중앙도서관)이 표준화된 서지기술방식에 따라 컴퓨터로 목록을 작성해서 자국의 모든 도서관 및 정보관리기관에 온라인으로 보급하는 동시에 외국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서지정보를 원활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주목적이다. MARC 포맷에서는 기본표목의 선정이나 그 기술형식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록의 서지기술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이미 표준화된 목록규칙(예: AACR2)에 따라 기술된 서지정보를 일정한 코드에 따라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MARC의 기술규칙은 다만 KORMARC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외적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자동화목록형식에서는 100, 110, 111, 130의 기본표목이라는 항에서 각각 “이 필드는 개인명이 기본표목으로 채택될 경우에 사용한다”(국립중앙도서관, 1993, p.63-66)고 하였을 뿐 기본표목의 선정이나 그 기입형식은 어떻게 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없다. 다만 한국정보관리학회의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에 관한 연구-단행본용 포맷에서는 “기본표목은 목록규칙에 의해 부여된다”(한국정보관리학회, 1991, p.100-101)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목록규칙인지를 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KORMARC 포맷에서는 기본표목을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선정하고 그것을 어떠한 형식으로 기술했던 상관없이 이미 선정된 기본표목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AACR2와 모든 MARC 포맷에서 이제까지 기본표목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문헌의 검색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접근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자료의 서가배열을 위한 한가지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문헌분류는 동일한 주제 동일한 내용의 문헌을 동일한 장소에 모으기 위한 것이며, 도서기호는 주로 개인저자명, 단체저자명, 서명, 통일서명 등의 기본표목을 기호화하는 것으로, 이것은 동일한 분류번호 안에서 동일한 저자 또는 동일한 주제의 순으로 배열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만약 기본표목을 기호화해서 도서기호로 삼지 않는다면 정보자료의 발행년도나 수입순으로 배열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나 이것은 합리적인 배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3.4 KCR의 미래

우리나라에서 30년간 사용되어 온 KCR과 자동화목록법을 위해 발행된 KORMARC기술규칙이 서로 독자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목록규칙의 표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목록의 작성을 효과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목록규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목록규칙이 목록작성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표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목록규칙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점에 비하면 우리는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각국의 서지정보가 국제적으로 유통되게 됨에 따른 목록의 국제적인 표준화의 요청

에 부응하여, 1961년에는 소위 파리원칙의 채택으로 검색과 배열의 기준이 되는 포목과 저록요소가 표준화되었다. 파리원칙이 각국의 편목규칙의 표목부의 개정에 반영되고 이어 파리원칙에 대한 주석판이 등장하게 됨으로서, 표준화의 증대가 가져오게 될 잠재적인 잇점에 대한 인식은 국제적으로 크게 고조되었다(오동근, 1991, p.4). 따라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은 MARC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목록규칙을 개정 또는 보완하면서 MARC 포맷에 적용시킴으로써 MARC 포맷에 관한 표준화는 물론 목록규칙의 표준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MARC와 목록규칙의 동시화 또는 일치성으로 가는 시점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존의 목록규칙인 KCR과 MARC 포맷을 위한 'KORMARC 기술규칙'을 한국도서관협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이 각각 별도로 개정 및 제정하는 바람에 한 국가내에 이원화된 규칙이 존재함으로써 국제적인 서지통정은 고사하고 국내에서조차 편목규칙의 표준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 양규칙의 통합된 규칙이 개발되고 표준화되어야 하며, 이는 한국도서관계의 당면과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규칙과 포맷 표준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일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KORMARC와 KCR의 각각의 제정이 아닌 통합규칙이 제정되는 것이 온라인환경에서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 4. 영미계목록규칙

본 절에서는 AACR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표목선정에 대한 원리, 원칙 또는 이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차후 이를 제정할 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 4.1 AACR이전의 목록규칙

현대목록규칙의 시원이된 Panizzi경의 '대영 박물관도서관 목록규칙'은 전체 91조로 되어 있으며, 이 규칙은 저자명을 기본저록으로 하는 저자명선기입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저록을 원칙으로 하는 안은 구미목록법의 원리 및 편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 밖에도 이 규칙에서는 참조지시, 각 요목의 기술순서, 목록의 배열 등을 다루고 있으며, 단체명을 기본표목으로 인정하고 성서에 대한 통일표목을 인정한 것과 학술기관, 사전류, 백과사전, 기도서, 정기간행물에 대한 형식표목의 사용과 무저자명 저작에 대해서 서명을 표목으로 하는 것 등을 규정하여 이후의 목록규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규칙은 당시로서는 매우 완벽한 편목규칙으로서 대영박물관 도서관의 사용에만 그치지 않고 Bodleian, Cambridge 등 대학도서관의 목록편찬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각국의 목록작성에 인용되었으며, 그 후에 편찬된 각국의 편목규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목록규칙에서 표목부에 대

한 제반 규정과 규칙이 근대에 최초로 제정되었다는 점이 큰 의의라고 하겠다.

1853년에 발행된 Jewett 목록규칙은 Panizzi의 규칙을 많은 부분 답습한 것으로 보며 Pannizi의 영향하에 놓인 규칙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Pannizi의 규칙은 특정한 한 도서관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인 반면에, Jewett의 규칙은 미국내의 모든 공공도서관에 적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Jewett의 규칙의 원칙적인 목적은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너무나 정교한 규칙은 야기될지도 모르는 모든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는데 부적절하다고 경고하고, 우선 원칙에 입각해서 성안된 일련의 통일성 있는 규칙을 제정하고 설명과 실례로서 보충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Hanson, 1970, p. 273). Jewett은 목록규칙에서 기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서명으로부터 기술을 시작하고 표목을 서명의 상단에 놓도록하여 처음으로 표목과 기술사항을 분리하여 행을 달리하였다(Jewett, 1853, p. 52).

39개조로 규정된 Jewett의 규칙에서 표목선정에 관한 조문이 13조에서 29조에 이르기까지 무려 17개항목을 배정하고 있어 거의 50%에 이르는데 이는 Jewett가 표목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목록의 기능중에서 검색기능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규칙은 책자목록을 위한 규칙으로서 기본저록만을 완전저록으로 하고, 다른 저록은 모든 규칙에 있어서 참조로써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Jewett 규칙의 표목부에 대한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저자명표목의 형식을 여러개의 이름을 사용하는 저자에 대해서는 표목을 하나로 통일시켰다. 또한 필명으로 기입된 저작의 어떤 판, 속편, 보유 등이 본명으로 출판되었을 때는 그 저작의 본명으로 기입한 점은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 하겠다.
- 2) 표목에 있어서 저자명의 원리를 단체에 까지 확대하여 모든 단체의 기능을 일원화하여 동일하게 취급하는 단 하나의 규칙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 3) 무저자명의 서명저록 방법에 있어서 최초로 관사나 전치사를 생략하고 서명의 최초 낱말부터 기입하였다. 오늘날에 있어서 창두관사를 배열상 무시하고 있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 Jewett은 형식표목을 저록으로 사용하지 않고 서명으로 직접기입하도록 하였다.

상기의 이러한 표목에 대한 제 원칙은 Panizzi의 규칙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특히 저작의 본명, 단체명을 저자명으로서의 확대, 배열상 모두관사의 무시, 그리고 직접기입의 원칙 등은 목록학이론 특히 표목선정을 구축하는데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1876년에 간행된 Cutter의 규칙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최초의 목록규칙이며 전체로써 사전체목록을 시도한 유일한 규칙(Mann, 1943, p.155)이었으며, 지금까지 사전체목록에 대하여 발표된 글중에서 도서관목록의 기능이나 사전체목록으로서의 그 목적달성의 방

법과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기술한 규정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목록규칙과 사전체 목록규칙의 원전으로 미국의 도서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Cutter의 규칙은 사전체목록을 위한 규칙이기 때문에 저자, 주제, 서명 등을 혼합한 목록으로 표목의 다양성을 도모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규칙이다. 초판 발행이후 정정하고 추가하여 1904년에 369조에 달하는 제14판을 발행하였다. 369조중 제197-220조가 표목에 관한 사항이다. 이 규칙에서 채택한 표목 선정의 원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기본저록의 표목으로서 개인명을 채택하고 있으며, 가명, 익명으로 발간된 도서는 저자의 본명을 아는 경우에는 저자명이 도서의 어느 부분에서도 찾지 못해도 본명을 표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 2) 단체명표목의 문제점을 단체명으로 직접 저록하는 것을 첫째 원칙으로 하였으며 단체의 기능에 따라 지명을 먼저 기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 3) 복수검색목록으로 기본저록이외의 검색요소로서 보조저록을 사용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했다.
- 4) Panizzi가 채택했던 형식표목을 적용하지 않고 주제명표목으로 발전시켰다.
- 5) 전기자료의 경우 저자를 표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무저자명 저서의 경우엔 서명으로 기입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표목부에 대한 보다 구체화 된 이론으로서 Jewett의 이론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보이며 또한 Cutter도 그의 독자적인

논리를 구축하려고 한 것으로 이른바 표목의 목적, 수단 그리고 주제명 등의 이론은 독특하다. 차후 표목선정의 원칙은 Cutter의 규칙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AACode(1904)에서의 표목선정은 서양의 전통적인 관례인 기본저록의 표목으로써 저자(개인 또는 단체)를 채택했으며, 저자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서명을 표목으로 채택하였다. 서명의 배열시 처음의 관사나 전치사를 무시하고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Panizzi, Jewett, Cutter 등의 목록규칙과 AACode에 이르기까지 영·미목록규칙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인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완전형 이름을 표목으로 작성해야 하며, 가명이나 익명의 경우에는 본명을 표목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단체명에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기능에 따라 기관을 국명이나, 지명을 표목으로 채택하지만 학회는 학회명을 표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AACode는 주제명표목에 대한 규정이 없다.

1949년에 발행된 ALA목록규칙은 Cataloging Rules: Author and Title Entries라는 서명처럼 기술사항에 대한 조문이 없고 저자와 서명저록만을 포괄한 규칙이라는 점이 특색이다. 이 규칙은 서문에 목록자가 각각 목록해야 하는 도서를 위해 결정해야 할 기본저록의 표목순서를 명백하게 지적해 두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ALA, 1949, p.xx1).

- 1) 저자 또는 기본저록은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가? (표목선정의 문제)
- 2) 표목의 형식은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가,

즉 언어는 무엇으로, 이름의 어느 부분으로, 단체명은 직접적인 이름으로 기입할 것인가, 또는 국가, 주, 시 등을 부표목으로 기입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 짓는 단계이다. (표목형식)

- 3) 선택된 표목에로 안내해 줄 어떤 참조를 만들 것인가(상호참조형식의 작성)
- 4) 어떻게 보조저록을 만들 것인가(보조저록의 작성)

표목에 필요한 결정단계를 분명하게 설정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표목선정의 결정단계에 의해서 규정된 ALA목록규칙에서의 표목선정은 4개항목 즉 첫째, 저록과 표목의 규칙, 둘째, 개인저자, 셋째, 저자로서의 단체, 넷째, 지명표목 등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4.2 AACRI후의 목록규칙

### 4.2.1 AACR

영미목록규칙은 주로 미국, 영국, 캐나다의 도서관계 전문가들이 수십년에 걸친 노력의 결정으로 부분별로 되어 있는 여러 목록규칙들을 수정개편하여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종합목록규칙이다. 수차례의 개정작업을 통해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1961년 10월 국제적으로 목록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목록원칙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s)에서 Lubetzky는 자신의 안을 제출하여 목록규칙을 위한 원칙으로 채택되게 하므로서 국제적 협력에 기여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협력의 결과로 작성된 개정초안은 미국도서관협회, 미국의회도서관, 영국도서관협회, 캐나다도서관협회가 협력하여 개정된 목록규칙을 출판하였다. 이것이 바로 영미목록규칙(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이다. 그러나 이 영미목록규칙 중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 3국이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각각 분리삽입해서 1967년에 미국과 캐나다는 226개의 조문을 총 400페이지의 북미판(North American Text)을, 영국은 216개의 조문을 총 327페이지의 영국판(British Text)을 출판하였다(ALA, 1967, p.371).

이러한 영미목록규칙은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표목, 제2부는 기술, 제3부는 비도서자료에 관한 것으로 대별하고 있으며, 또한 다수의 장에서 규칙을 일반규칙과 특별규칙을 구별하였으나 어떤 경우에는 명백히 구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ALA, 1967, p.5-6) 그러므로 특별규칙에 대해서는 항상 일반적인 규칙과 관련해서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 AA Code나 ALA목록규칙은 비교적 공식적이며 형식적이고, 세분화되고 복잡한데 비해 AACR1은 포괄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경제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태우, 1982, p. 120).

1841년 Panizzi규칙이라 Jewett과 Cutter의 규칙, AA Code, ALA 규칙에서는 표목선정의 일반규칙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AACR1에서 최초로 표목선정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표목선정의 전반에 걸친 지침이 되어 표목의 일관성을 가져오게 하였다.

AACR1의 표목선정의 원칙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ALA, 1967, p.9-10).

- 1) 저자 또는 주가되는 저자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 그 주저자를 표목으로 한다.(저자표목)
  - 2) 저자나 주저자가 없이 편자나 그 저작의 존재에 대하여 제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편자명을 표목으로 한다.(편자명 표목)
  - 3) 여러저자의 저작을 모은 합집인 경우는 표제지에 편찬자명을 표목으로 한다.(편찬자명 표목)
  - 4) 기타의 저작으로서 저자성이 애매하거나 미상인 경우는 서명을 표목으로 한다.(서명표목)
  - 5) 법률이나 헌법과 헌장, 판례, 조약, 성전, 전례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저작의 유형이나 형식을 나타내는 경우는 통일표목으로 한다.(통일표목)
  - 6) 저자성이 애매한 연속간행물의 경우 단체명을 표목으로 한다.(단체표목)
- AACR1에서 표목선정을 위한 정보원으로서 표제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목록규칙에서 성서, 무저자명, 고전에만 적용하였던 통일서명의 사용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이 규칙의 특징은 첫째, 저록과 표목에 있어서 AA Code 1908년판과 1949년의 ALA목록규칙을 지속하고 있으나 파리원칙을 기초로 개정된 것이므로 기존규칙과는 달리 그 검색방법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즉 기존규칙의 출판물의 형태나 저자의 기능보다는 Lubetzky의 지시에 따라 저자의 책임성의

결정에 입각하여 기본저록을 선정하도록 한 점이다.

#### 4.2.2 AACR2

1967년 AACR1이 발행된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목록의 기계화와 정보유통을 위한 목록의 국제화 및 표준화를 위해 규칙의 개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1969년부터 LC의 기계가독목록(MARC)의 배포와 1961년에 IFLA에서 국제서지기술의 통일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1974년에 그 첫 번째의 결실로 국제서지기술법(ISBD(M))과 ISBD에 의한 세계과학정보유통체제의 구상 등이 또한 AACR1의 개정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4년 3국 5개단체로 AACR1의 개정을 위한 합동조정위원회(JSCAACR)를 구성하고 서지기술의 기계처리에 대응할 수 있는 개정을 위한 구성원을 결정하고, JSCAACR의 목적 설정 등에 관한 합의 각서를 초안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였다(Kelm, 1978, p.23-24). 이 JSCAACR의 활동 결과로 1977년 8월 Washington에서 최종 모임을 갖고 AACR2의 출판을 위한 최종안을 결정하고 1978년 12월 영미목록규칙2판(AACR2)을 영국, 미국, 캐나다가 함께 단권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AACR2의 구성은 전체가 2부 26장 720페이지로 되어 있으며, 각부마다 서문이 있고 각장마다 목차가 세분되어 있으며, 특히 비도서자료에 관심을 가지고 비중을 두었으며, 표목보다는 기술부를 먼저 취급하고 있다. 제1부는 기술부로서 모든 종류의 자료에 대한 서지적

기술정보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제2부는 목록이용자의 검색의 접근점이 되는 표목을 설정하고 결정하는 표목부로서 기본저록과 보조저록의 선택, 표목의 형식과 통일서명, 참조로 구성되어 있다.

AACR2의 편집방침중에서 기본저록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Gorman, 1978. p.vii).

- 1) AACR1의 목록규칙 전체의 구성을 변화시켜 제1부는 기술, 제2부는 표목으로 하고, 도서와 비도서의 규정을 공통으로 쓰게 한다.
- 2) 파리원칙에 불충분한 저록과 참조의 설명을 이해가 쉽도록 한다.
- 3) 기술에 관한 구두점은 ISBD에 준한다.
- 4) 기존목록규칙과 달리 기본저록원칙을 강조하지 않고 별도 표목기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본저록의 원칙을 바탕으로하여 제정되었으며, 모든 자료의 형태를 동등하게 취급하여 저록과 표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같은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 5) 컴퓨터 응용 가능성을 전제로 하였다.

AACR2의 제21장의 접근점은 기본저록을 중심으로 한 주요한 변화라고 하겠다. AACR2는 검색어의 선정에서 표목선정원칙은 검색요소의 선정과 표목의 형식에 대해 각장마다 일반규칙을 다루고 각 규칙마다 특정한 상태에 따른 표목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목록규칙과 같이 기본저록을 강조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저록의 개념은 저자저록의 개념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면서 더욱 명확하게 되

고 논리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저자개념은 개인저자의 개념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고, 단체명은 저자개념에서 분리되어 저자의 범주에서 독립되고, 기본저록의 저자저록이라는 개념은 범위가 확대되어 저자서명저록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Panizzi규칙에서 AACR1까지 사용해 오던 형식표목은 통일서명으로 발전되었고, 표의 형식은 기계가독목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그러나 AACR2는 자동화목록의 상황에서 구축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1974년에서 1977년간에 저술될 당시에는 자동화목록이 구성되는 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질 때였다(Hagler 1985, p.12)고 지적하였듯이 AACR2는 온라인환경에서 서지레코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 4.2.3 AACR2R

1988년에 발행된 AACR2의 개정판은 AACR2의 기본적인 구조와 규정에 대한 개념은 변화하지 않았다. AACR2에서 잘못된 것이나 누락된 것을 바로 잡고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수정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명된 규칙을 완전히 새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규칙과 예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어떤 규칙은 용어를 새로 정하거나 재배열하였으며, 적절한 참조를 부가하기로 하였다(AACR2R, 1988, p.xii-xiv).

AACR2R의 기본방침은 한자료에 대한 표준적기술이 기술부의 규칙에 따라 작성되면 목록저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그 기술에 표목이나 통일서명을 추가한다. 한가지 예외는 한 저록이 본서명을 표목으로하여 작성되는 경우

인데 이 경우 저록은 기술부의 첫째 단어를 표목으로하여 작성될 수도 있다. 각장에서 일 반규칙은 특수규칙에 앞선다.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정한 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좀 더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한다. 또한 자료가 출판되는 매체에 상관없이 모든 도서관 자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AACR2R, 1988. 규칙20.1-20.2).

특정문헌의 검색기능은 기본표목의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부출표목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계가독목록에서는 기본표목이외에 각종 제어번호, 표준서지번호를 사용하여 이 기능이 크게 확장 되었다. 특정저자의 저작과 특정저자의 제판을 집중하는 목록의 기능도 부출표목과 참조, 주기, 통일서명이 기본표목과 대등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태수, 1995. 12. p.31)고 말한 것처럼 AACR2R에서는 표목과 저록 대신에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용어는 전통적인 카드목록에서 온라인목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점은 편목자의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의 환경으로 기술목록에서 변한 것이다. AACR2R은 온라인 목록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표목으로 접근점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서지적 기술사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부출표목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록이용자가 기본표목이나 서명보다는 서지적 기술사항이 명시된 표목 또는 서명으로 찾을 가능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개인명, 단체명, 서명을 부출표목으로 하며, 편목시 특수규칙에 명시된 표목이외의 표목이나 서명이 필요하다면 이를 작성한다(AACR2R,

1988)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AACR2R은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점을 확대하여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4.3 AACR의 미래

수작업의 카드목록시대에 적용하도록 제정되어진 목록규칙은 오늘날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수행하는 기계식환경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있다. 특히 목록의 중요한 기본 원칙중 기본저록은 온라인환경하에서 그 개념의 중요성을 잃어 가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AACR이 온라인목록의 요구사항에 관련해서 일치하지 않고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Wajenberg는 편목기준의 미래에 관한 논문에서, 온라인목록은 아주 다른 규칙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고, 이 규칙은 카드목록이나 책자목록의 상황에서는 의미가 통하지만 표목에 대한 키워드 접근법을 가진 온라인목록을 위해서는 비생산적이라는 점에서 AACR2R을 비판하고 있으며, 또한 그는 온라인목록을 위한 규칙은 결국 표목의 선택과 형식에 대한 규칙에서는 대단히 많은 급진적인 변화를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이 규칙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변화는 이 규칙중의 특정한 장에 대한 완전한 재고를 요한다”(Wajenberg, 1990. p.495)고 했다. 여기에서 ‘특정의 장’이란 제 2부 접근점의 장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Winke(1993, p.60)에 의하면 “기본저록의



개념은 오늘날의 목록에서는 죽은 논제가 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최근 문헌(예: MARC 포맷, AACR2, 등)이 개정될 때 기본저록이라는 용어를 빼야하고 수작업환경에서만 정의로 인정해야한다. 오늘날 기술목록은 AACR2의 적용과 온라인목록을 만들기위해 MARC 포맷에 이 규칙의 혼합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오늘날 목록환경에서 기본저록의 제거를 위해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AACR2 제21장을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원칙에의해서 완전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1) 의미론적인 문제, 대부분 포함하는 부차적이고 중복된 낱말의 변경
- 2) 기본저록개념의 주요한 기초중의 하나인 원칙적이고 혼합된 책임성의 개념의 혼적을 제거
- 3) 단체명기본저록의 난해한 이론에 근거한 규칙들의 제거
- 4) 원문의 주요한 부분을 보조저록규칙의 통합

AACR2 제21장의 개정의 많은 부분은 첫 번째원칙에 근거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칙은 목록레코드를 만들고 주제분석과 같은 보다 더 추상적인 업무를 위한 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제4원칙은 모든 장의 표시를 할 것이다. MARC 포맷의 1XX 필드는 퇴화되어 갈 것이며 많은 도서관들은 1XX 필드를 그들의 커터저자번호해김(Cuttering)에 사용함에 따라 일부 Cuttering표시가 포맷에 편입이 필요하다고 Winke가 주장하듯이 Cutter번호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Tucker(1992, p.41)는 "표목의 형식을 위한 규칙에 있어서는 거의 변경이 없을 것이고 기본저록표목의 선택을 위한 규칙에서는 몇가지의 조정이 있을 것이며, 서지적기술을 위한 규칙에서 약간 조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또한 그는 "AACR2R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는 규칙으로서 계속 사용 중에 있는 살아 있는 규칙이다"고 하였다.

Brunt(1992)는 목록생산기술이 크게 변했고, 따라서 전자목록이 서지적 레코드에 대한 접근점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더욱 발전될 것이므로 목록기술법을 다루는 이 규칙은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AACR2에 대한 필요한 변경에 관해서 Brunt는 이 규칙의 재설계는 온라인목록의 특성과 성능, 특히 탐색과 검색성능에 기초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은 온라인환경에 맞는 AACR2의 완전한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목록환경에서 키드목록생산에 맞도록 규정된 규칙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목록시대를 위한 목록규칙은 서지적레코드의 작성에 있어서 목록자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정될 AACR2는 Brunt가 말한 것처럼 온라인환경하에 적절한 규칙으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지적 관계유형을 적용한 하이퍼텍스트나 하이퍼미디어개념을 도입하여 자관의 목록이 외부의 다양한 서지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표준화되고 통합된 목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

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AACR3와 MARC와의 통합도 이루어져야 서지통정의 표준과 유통에서 진일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5. 온라인환경하에서의 접근점

온라인목록에 있어서는 기본표목과 부출표목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다. 그들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갖는 동일한 접근점이다. 또한 기술부에서의 키워드도 접근점이 될 수 있다. 서지기술은 접근점으로 파일되며, 그들로 검색된다. 그러므로 최초의 편목규칙에서부터 AACR의 가장 최신판에 이르기까지 접근점의 선택과 형식은 기술편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AACR2에서 표목(heading)과 저록(entry)대신에 사용된 접근점(access point)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카드목록에서 온라인목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 것이다. 환언하면, 이러한 접근은 편목자의 입장에서 이용자입장의 환경으로 기술목록에서의 변화를 의미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것들은 불리언논리를 사용하여 결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접근은 비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사람들은 정확한 저자명이나 서명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발달된 전거통제시스템에서는 어떤 접근점이든 정보에 대한 똑같은 접근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표목과 참조표시 사이의 차이점은 이용자에게 무의미한 것이다(Gorman, 1978, p. 209).

AACR2(1967, p.277)에서 “서지기록의 기계

처리에 대한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기술과 접근점을 분리하여, 첫부분에 기술을 둔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AACR2에는 임의로 선택표목원칙을 남겨두고 기본표목원칙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온라인 목록시대의 규칙으로서는 실패한듯하다(Takawashi, Shihoto and Oshiro, 1989, p.75)고 했다. 편목의 역사를 연구한 Strout는 “목록규칙은 그 시대의 관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달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수단인 것이다”고 말했으며, Gorman(1978, p.218)은 “발달된 기계시스템에서는 기본표목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 기본표목의 권위가 기계시스템에 기초하는 미래의 목록규칙에 존속되리라는 가망은 희박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본저록의 무용론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

온라인목록의 출현과 발전으로 어떤 서지레코드이든 접근점을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되었다. 카드목록에서 전통적인 기본 및 부출저록과 비교하면 서지레코드에서 어떤 데이터요소이든 접근점으로 부여될 수 있다. 온라인환경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기술목록과 편목규칙에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온라인목록의 발전의 결과로 기술부와 접근점간의 경계는 무너졌다. 이러한 개념은 목록규칙에 대한 자동화의 우선적인 영향의 하나이다. Duke에 의하면 기술과 접근점간의 경계의 모호성은 목록규칙의 영향력이다. 자유로운 본문탐색과 그의 변인들은 단어절단과 조합에서처럼 가중치탐색은 목록에서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일정하게 구조화

된 기술을 추구하고, 접근점을 풍요롭게 하는 어떤 범위는 기술편목의 영역에서 한정해 줄 필요가 있다(Duke, 1989, p.120-121).

Malinconico와 Fasana는 AACR2에서 규칙의 항목수를 접근점의 많은 수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서지레코드의 내용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는 기본위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AACR2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의 변경수는 온라인목록을 위해 필요한 접근점의 형식에 관련된 것들이다. Whihs와 Howarth는 자동화로 영향을 받은 즉 연속간행물명의 두문자와 한정어, 본서명, 다양한 판등에서 분담책임성의 다양한 이름순과 같은 접근점 및 저록의 형식에서 변화를 보고한바 있다. 또한 Gorman, Carpenter, 그리고 Wajenberg 등은 온라인목록에서는 통일표목의 필요성도 없다고 했다. 특히 온라인환경하에서 기본저록의 개념이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측면에서 Takawashi, Ahihota and Oshiro 등은 무기본저록개념을 적용하는 기술단위카드시스템이 온라인 환경하에서 보다 효과적이며, 서지데이터베이스의 국제적 호환이 용이하다고 하였다(Fatthi, 1995, p. 35). 기본저록의 개념은 기계화이전 시스템에서 야기된 것이며, 서지레코드검색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보다 많은 접근점을 기술상 허용하는 쪽으로 진전된 온라인목록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많은 목록학자들이 온라인환경하에서의 기본저록의 개념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만 AACR2에서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MARC포맷구조와의 연관이 있으며, MARC

포맷의 재구조화를 하지 않는 한 이 개념은 계속 살아 있을 것이다. MARC포맷과 AACR2사이의 관계는 어떤 한 요소가 불완전하면 다른 것에 영향을 끼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수백만개의 레코드가 이들 두 개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좀더 분명해진다. Gorman에 따르면 "MARC포맷은 20년이상 좋은 나쁜 기술목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 오고 있다"(Gorman, 1990, p.70)고 하였다. AACR2에 있는 몇가지 부적절한 규칙 때문에 MARC포맷은 AACR2에 없는 규정들을 위한 여분의 필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MARC포맷과 AACR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여 서지레코드의 코딩과 내용을 함께 다루는 한 개의 기준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Attig는 두 개의 기준 사이에는 많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 AACR2-MARC, 즉 서지데이터의 내용과 식별기호를 붙이는 것 모두를 관리하는 한 개의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다(Attig, 1989. p.7)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매우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차후의 목록규칙의 개정 시에는 시도해 볼만한 매우 가치있는 작업이 될 것이며 앞으로는 반드시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날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도서관이 현실화되고 온라인목록이 활용되면서 목록의 기본표목으로서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검색어와 접근점이 카드목록보다 더 많이 확대되고 빠른 정보탐색기법을 통하여 각각의 목록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6. 목록규칙의 미래

온라인 목록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미래의 목록규칙에 좀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학자 Intner, Gorman, Carpenter 등의 활동이 무척 활발한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들을 규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Intner는 정보매체와 기술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기술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녀는 목록규칙이 동적이고 그 규칙은 적용되는 자료에 적절하여야 하기 때문에 AACR의 새로운 판, 즉 AACR3가 아주 필요하다고 하면서 “가령 어떤 책이 AACR3라고 일컫는 것을 도서관에서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목록규칙은 문헌에 정적이지 않고 목록의 원칙과 기능에 따라 시간마다 바뀐다”(Intner, 1988,p.7)고 하였다. 이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규칙의 개정은 필연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Gorman(1992, p.90)도 미래의 전자목록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규칙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온라인서지통합시스템이라는 온라인목록의 도래와 도서관 네트워크의 구축과 발달이 편목실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편목규칙에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Carpenter(1992, p.101)는 “온라인목록의 새로운 세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술이 개발되기전에, 그리고 오래된 사고방식들이 대규모 파일에 더욱더 희망없이 처리되기 전에 전문가는 이제 온라인 시대를 대비

한 새로운 편목규칙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Carpenter는 일련의 규칙들을 편집하는데 기술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미래의 전자목록은 서지레코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기술목록을 다루는 규정은 재설계되어야 하며, 온라인 목록의 특징과 성능, 특히 탐색 성능에 기초를 두고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목록규칙은 MARC포맷과 상호의존적이므로 서지 레코드의 코딩과 내용을 함께 다루는 한 개의 기준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카드목록에서는 특정형식의 기본 표목을 선정하고, 이와 상이한 형식의 이름과 선정된 표목을 참조로 연결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관련된 저작물을 목록상에서 집중하기 위하여 인명과 서명 주제명 등 접근점을 통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전거통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Cutter의 목록의 두 번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서지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이퍼텍스트(HYPertext)나 하이퍼미디어(HYPERMEDIA)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서지적 관계유형을 나타낼 수 있고 특정문헌의 검색기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전통적인 목록의 기술요소가 아닌 목차, 초록 및 저자에 관한 정보가 수용되고, 한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상이한 언어도 수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관의 목록이 외부의 다양한 서지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통합된 목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HYPERMARC와 같은 것이 개발되어 서지적관계유형을 수행하여 목록의 집중기능과 검색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리라고 본다.

## 7. 결 론

이상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한국목록규칙과 영미계 목록규칙을 중심으로 목록 검색의 요소가 되는 표목의 변천과정과 온라인환경에서의 표목과 미래 전망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의 한국목록규칙과 영미목록규칙은 단일저록체제였다. 단일저록목록에서 레코드의 배열에 대한 결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Panizzi와 Jewett은 모든 도서는 저자의 성 아래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도록 제안하였다. 저자명이 도서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저작은 무저자명으로 취급하여 서명아래 목록하도록 하였다. Panizzi는 서명에서 최초의 명사어를 표목에서 최초의 단어로 선택하도록 제안한 반면에 Jewett은 서명(관사나 전치사는 제외)의 최초단어를 우선하였다. 가능한 언제든지 창작물인 도서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과 연계시킨 이러한 접근방법은 오늘날까지도 지배적인 것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목록규칙으로 1967년 이래로 사용되고 있는 영미목록규칙(AACR, AACR2, AACR2R)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둘째, 표목의 개념은 목록의 발생과 더불어 비롯 되었으며, 영·미계 목록규칙에서는 Panizzi의 목록규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Panizzi나 Jewett의 목록규칙에서는 표목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없이 다만 규칙조항에서 표목이란 낱말이 자주 사용될 뿐이다. 표목에 대한 개념은 Cutter의 목록규칙의 용어정의에

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본저록의 표목선정에서 저자를 기본표목으로 채택하는 원칙은 Panizzi의 목록규칙에서 최초로 설정해 주고 있다. 이 원칙은 이후의 영미계 주요 목록규칙에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AACR2에서는 저자를 기본저록으로 하는 범위가 줄어들고, 단체명, 서명, 보조저록이 확대되었다.

셋째, 형식표목은 Panizzi규칙에서 최초로 채택되었다. 이 형식표목은 Jewett와 Cutter규칙에 와서 주제표목으로 발전되었으며, 부분적으로 AACR1까지 영향을 미쳤다. 단체명을 기본저록으로 인정한 것은 Panizzi 규칙에서부터 시작하여 AACR1(북미판)까지 사용되었다. 그러나 AACR2에서는 기본저록에서 단체명표목이 줄어들고, 개인명과 서명 기본저록이 많아지고 단체명 보조저록이 증가되었다.

넷째,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의 도입으로 기술독립방식은 기술부에 완전한 서지정보가 기입되므로 표목없이도 완전한 서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단위카드의 도입으로 복수기입목록에서 기본저록과 보조저록은 검색점으로서 이용자에게 동등한 가치를 갖게 되므로 기본기입표목원칙은 무의미 하다. 기본저록에 대한 개념이 AACR2를 전후해서 변화되었다. 기존의 기본저록은 기계화이전의 기술에 근거한 기술상의 한계에서 생긴 것이며, 현대의 기술에 의한다면 동등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접근점을 다수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AACR2에는 임의로 선택표목원칙을 남겨두고 기본표목원칙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온라인 목록시대의 규칙으로는 부적절하

다. 따라서 온라인환경하에서 세계적인 정보 유통과 도서관장서들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소재파악을 할 수 있도록 AACR2R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AACR과 MARC 포맷은 상호의존적이므로 한편의 어떤 급진적인 변화와 재설계는 다른 한편과 관련해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서명기본저록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KCR3도 온라인환경에서 완전한 목록규칙이 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표목부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KORMARC와 연계하여 기술규칙의 개정도 필요하다.

마지막 결론 및 제안으로는 카드목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접근점으로서 지속되어온 기본저록의 개념은 온라인목록에서 기본표목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있듯이 목록규칙의 표목부에 대한 변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미래엔 한 지역적인 목록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목록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또한 한 저작의 실제적인 복사물 뿐만 아니라 가상적인 복사본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온라인 환경은 그 규칙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관련된 저작물을 목록상에서 집중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점을 통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전자통제시스템의 개발과 서지적 관계유형을 적용한 하이퍼목록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편. 1982. 국제표준서지기술법에 의한 한국문헌기술새부규칙. 서울 : 동도서관.
- \_\_\_\_\_. 1980.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 실험용 포맷(단행본용). 서울 : 동도서관.
- \_\_\_\_\_. 1993.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단행본용(KS C5867). 서울 : 동서관.
- 김태수. 1991. 독일목록규칙의 주기입법에 관한 연구 : 영미목록규칙 및 서명주기입법과의 비교분석.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_\_\_\_\_. 1995. "표목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관리학회지 12(2) : 9-35.
- 남태우. 1982. 목록에 있어서의 표목법의 변천고 : 특히 영미계목록규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리재철, 현규섭 역주. 1976. 국제표준서지기술법(단행본용). 표준 1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오동근. 1991. "MARC와 목록규칙". 도서관 46, 3(314). 5.6합 : 3-23.
- 정필모. 1993. 목록조직론. 개정증보판. 서울 : 구미무역출판부.
- 한국도서관협회 편. 1964. 한국목록규칙. 서울 : 동협회.
- \_\_\_\_\_. 1966. 한국목록규칙. 수정판. 서울 : 동협회.

- \_\_\_\_\_. 1983. 한국목록규칙3판. 서울 : 동협 회.
- \_\_\_\_\_. 1990. 한국목록규칙3.1판. 서울 : 동 협회.
- 한국정보관리학회. 1990. 한국문헌자동화목록 법에 관한 연구 : 단행본용포맷.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49.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 2nd ed. Chicago : ALA.
- \_\_\_\_\_. 1967.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North American Text. Chicago : ALA.
- \_\_\_\_\_. 1978.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Chicago : ALA.
- \_\_\_\_\_. 1988.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revised. Chicago : ALA.
- Brunt, Rodney M. 1992. "The Code and the Catalogue : A Return to Compatibility." *Library Review* 41(3) : 21-32.
- Carpenter, Michael. 1992. "Does Cataloging Theory Rest on a Mistake?" in *Origins, Content,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ited by Richard P. Smiraglia. Chicago : ALA : 95-102.
- Cutter, Charles Ammi. 1904.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 4th ed. Washington : Government Printing Office.
- Catalog Rules, Author and Title Entries. 1908, compiled by Committee of the American Libvrary Assaciation and the British Library Association, American edition. Washington, ALA, Publishing Board.
- Daily, Jay E. 1968. "Anglo-American Code"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 New York : Dekker.
- Duke, John K. 1989. "Access and Automation : the catalog record in the age of automation." in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Descriptive Cataloging*, edited by Elaine Svenonius. New York : Academic Press.
- Fattahi, Rahmatollah. 1995.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in the Online Environment : A Literature Review."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20(2) : 25-50.
- Gorman, Michael. 1978a. *Anglo-American Rules*. 2nd ed. Chicago : ALA.
- \_\_\_\_\_. 1978b.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2nd ed. *Library Resouces & Technical Services*" 22(3) Summer : 209-226.
- \_\_\_\_\_. 1990. *Technical Services Today and Tommorrow*. 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 \_\_\_\_\_. 1992. "After AACR2R : The Future

- of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in *The Origins, Content, and Future AACR2 Revised*, edited by Richard P. Smiraglia. Chicago : ALA : 89-94.
- Hagler, Ronald. 1985. "The Machine-readable Bibliographic Record in the fifth Year of AACR2" . Singapore Libraries 15 : 11-18.
- Hanson, Eugene R. and Daily E. 1970. "Catalogs and Cataloging"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4. New York : Dekker.
- Intner, Sheila S. 1988. "The Case for AACR3." *Technicalities* 8(4) : 4-5.
- Jewett, Charles C. 1853. *Smithsonian Report on the Construction of Catalogues of Libraries, and their Publication by mean of Separates, Stereotyped Title: with Rules and Examples*. 2nd ed. Washington : Smithsonian Institution.
- Kelm, Carol R. 1978. "The Historical Developmenr of the Second Eition of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22(1) Winter : 22-33.
- Mann, Margaret. 1943.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the Classification of Books*. 2nd ed. Chicago : ALA.
- Takawashi, Tadaayoshi, Shihota, Tsumtomu and Oshiro, Zensei. 1989. "The No Main Entry Principle :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Nippon Cataloging Rule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9(4) : 67-77.
- Wajenberg, Arnold S. 1990. "The Furure of Cataloging Standards." *Illinois Libraries* 72(6) : 494-497.
- Winke, R. Conard. 1993. "Discarding the Main Entry in an Online Cataloging Environment."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16(1) : 53-70.



# 한국문헌정보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1996. 2. 15 개정

## 제1장 구성과 임무

1. 본 위원회는 본 학회 회칙 제17조(위원회)에 의거, 본 학회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본 위원회는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며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고 접수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 필자의 요청에 따라 논문게재예정증명서(별표)를 발행한다.
6. 본 학회지는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간행한다.

## 제2장 원고작성

7. 국문원고를 기준으로 참고문헌, 그림, 표 등을 포함하여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36자 28줄 20쪽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8. 원고 표지에 논제, 필자명, 직급, 소속기관을 각각 국문 및 영문으로 기록하고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기한 후 원고 전체에 쪽수를 표시한다.
9. 원고 첫째 쪽에 논제를 쓰고 목차, 국문초록, 영문초록, 본문을 실는다. 초록은 지시 초록으로 한다.
10. 본문인용 및 참고문헌의 기술방식은 다음의 범례를 따르되 자세한 것은 The Chicago manual of style (14th ed., 1993)을 준용한다.

### <범례>

#### (1) 본문인용

- \* 리재철(1990)은 문헌정보학의 학명에 대해 ...
- \* ... 일본보다는 서양의 도서관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이춘희, 1989, 105).

## (2) 참고문헌

- \* 단행본 : 저자명, 출판연도, 서명, 출판지, 출판사.

Nisonger, Thomas E. 1992. Collection evaluation in academic libraries: A Literature guide and annotated bibliography. 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 \* 학술논문 : 저자명, 출판연도, 논제, 잡지명, 권호, 페이지.

Birdsall, D. G. and Olver, D. H. 1994. "A New strategic planning model for academic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55(2): 149-160

11. 국문원고에 기술된 외국어나 외래어는 한글 역어 또는 원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첫 번에 한하여 원어를 부기한다. 외국인명은 한글로 표기하지 않고 외국어 그대로 적는다.

## 제3장 투고

12.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에 한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3. 투고는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학술논문이어야 한다.
14. 투고는 수시이며, 그 접수일자는 원고가 본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15. 투고자는 본 규정 제2장에 따라 작성된 원고 3부와 그것을 수록한 디스켓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6. 논문의 내용에 관한 책임은 필자에게 있으며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4장 심사료와 게재료

17. 필자는 투고와 동시에 심사료 이만원과 게재료 일십만원을 본 학회에 납부해야 한다. 단, 심사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은 투고자에게는 게재료를 즉시 환불한다.
18. 정년퇴임 교수의 논문과 본 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심사료와 게재료를 받지 아니한다.
19. 본 규정 제7항에 의거, 20쪽을 초과하는 원고의 필자는 초과된 인쇄 쪽당 일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20. 본 학회는 별쇄본 10부를 각 필자에게 증명하며 그 초과분은 필자의 사전요청과 실비부담에 따라 제공한다.

< 별 표 >

한국문헌정보학회

문정논문 제 호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논 제

위 사람의 논문은 본 학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통과하여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연월일)에 게재될 예정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문헌정보학회 편집위원장 (직인)